선학원, '내부 비판' 분원에 분담금 인상 논란

선학원미래포럼, "표적 인상"
'직무정지가처분'동참 분원에
25~100% 분담금 인상 공문
총무이사 지광스님, 취재거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2019년 성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전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 을 제기한 분원에 대해 '분담금 표적인상' 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선학원측이 분담금 인상 분원을 '채권자' 로 지칭하고 인상 이유를 '소송비용' 이라고 설명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자격을 문제 삼은데 대한 '재갈물리기식' 조치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3월 17일 "재단법인 선학원은 최종진(법진)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이사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분원을 표적해 2020년부터 인상된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해당분원들의 분담금 인상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재)선학원에 방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내역에 따르면 해당 분원들의 분담금 인상율은 종전 분담금의 25%~100%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인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조계종을 비롯한 여타 종단들이 분담금 감면 조치를 취한 것과도 상반된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이에 해당 분원장들이 (재)선학원에 인상 이유를 문의하자, 총무이사 지광 스님 등 담당자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괄 소송비용으로 표적 인상을 했다' 는 등의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공문에는 분담금과 소송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분담금 인상의 근거나 기준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비용은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재단측이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소송비용을 계산해 분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소송이 전이사장 법진 스님의 부도덕한 행위에서 비롯됐으며, 분원장 스님들의 문제제기는 선학원 정관상 '임원의 자격을 ' 덕망이 높은 승려' 로 명시한 선학원 정관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최종진(법진)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재)선학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경멸받는 집단으로 전락해도 이사장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고 선학원 분원 대중들에게 참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선학원의 파멸을 묵과할 수 없었던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으로서 일말의 염치와 수치심이 남아 있다면 차마 '소송비용 부담' 운운하며 눈속임으로 분담금에 덧붙여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근거 없는 부당한 편법을 써서 소송비용을 할당시킨 이사회의 행위는, 이사회가 어떠한 파행운영을 하더라도 분원장들은 입다물고 비판하지 말라는 '재갈물리기식 조치' "라는 주장이다.

분담금 산정 기준과 사용내역 등 일체의 재정운영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학원미래포럼은 "2012년 이후 전국 분원장회의를 폐지한 후 지금까지 (재)선학원 이사회는 분담금을 비롯한 일체의 재정운영에 대해 분원장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분원에서 납부한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분원장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분원장들은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상당수의 분원은 (재)선학원이 분담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때까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어 선학원미래포럼은 "분원에 대한 (재)선학원의 갑질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며 "창건주 위임 · 승계시 조계종 제적원 요구, 분원장 임명시 충성 각서 요구, 창건주 · 분원장 재산 강제증여 요구, 분란을 부추겨 사고사찰 지정, 불투명한 재정운영 등 최종진(법진) 이사장 시에 자행된 (재)선학원의 파행과 창건주 · 분원장에 대한 갑질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이와 관련 (재)선학원에 질의공문을 발송하고 △분담금 인상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기록 공개 △소송비용 공개 및 분원당 책정비용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인상된 분담금을 고지한 이유를 물었다. 또 분담금 원상회복과 차후 분담금 인상시 기준과 근거 투명하게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총무이사 지광 스님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할말 없다" "답변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조계종 재가 신도들, 선암사 호법단 구성한다

중앙신도회 · 포교사단
3월 15 · 16일 성명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과 포교사단을 위시한 포교사들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재가호법단 구성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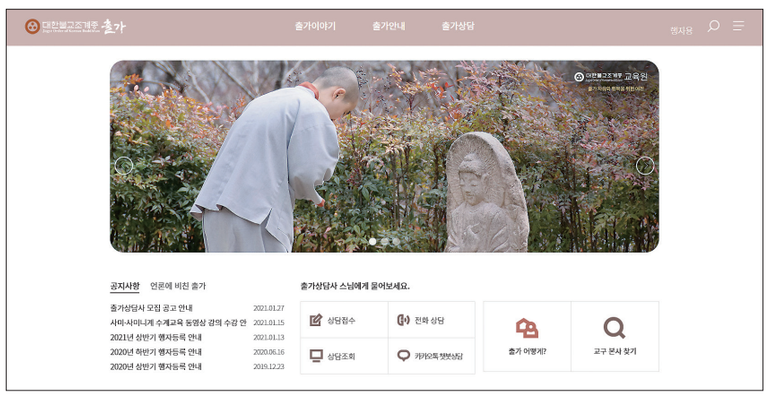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주윤식)과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각각 3월 15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선암사 정화결사단의 산하 단체로 재가호법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선암사 판결에 대해 "정화운동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역사적 정통성을 흔드는 중대한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가호법단의 규모를 조계종 전국 교구 본말사 신도회와 5000여 포교사 등을 망라하는 규모로 구성하고 조계종 한국불교 역사의 정통성 회복하는 순간까지 정진할 방침을 함께 전했다. 노덕현 기자

출가 궁금하면 '카톡 챗봇' 상담하세요

조계종교육원의 출가 사이트
전면개편…24시간 상담 가능
수계교육 콘텐츠 강화해
동영상 출가수기 공모도



전면 개편한 조계종 교육원의 '출가' 사이트 초기 화면.

출가 절벽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출가' 사이트(monk.buddhism.or.kr)를 전면 리뉴얼해 출가 희망자들에 대한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강화했다. 출가 홍보와 상담을 시대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스마트 시대에 맞춰 출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기 위해 '출가' 사이트를 전면 리뉴얼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대에 맞춰 온라인 출가 상담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리뉴얼을 통해 기존 출가상담사 스님과의 전화, 이메일 상담 이외에도 24시간 카카오톡 챗봇 상담도 가능해졌다. 카카오톡 챗봇 상담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대한불교조계종 출가' 또는 '출가' 라고 검색한 뒤 대화창에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질문하면 챗봇이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행자의 일상교육 평준화와 향상을 위해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온라인 사전교육 시스템' 도 구축했다. 출가 행자가 교구본사를 경유해 조계조유 교육원에 행자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행자등록이 완료되며, 등록된 행자는 '출가'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행자들이 수계교육 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행자교육 과정을 최초로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했다. 수계사전교육 온라인 콘텐츠에는 현직 수계교육 교수사 스님들이 참여했다.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을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 · 제출해야 하며 수계교육 이후에도 재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향후, 조계종 교육원은 동영상 출가수기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공모 영상을 공유하고, 승려연수 강의 ·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현장 콘텐츠, 인증 연수 교육 과정 등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호계원장 보광 · 포교원장 범해 스님 추천

중앙 종회, 3월 16일 안건 마감
단독 후보추천…임시회서 확정


보광 스님


범해 스님

조계종 차기 호계원장에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제8대 포교원장에 전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사무처에 따르면 3월 16일 220차 임시중앙종회 안건접수를 마감한 결과, 차기 호계원장과 포교원장에 각각 보광 스님과 범해 스님이 단독후보로 추천됐다. 종헌에 따르면 호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임명 여부는 3월 23일 개회하는 220차 임시중앙종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보광 스님은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경주 분황사에서 동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후 1980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학위, 1985년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했으며 90주년 기념사업 본부장,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 학교 대외업무를 관장했으며, 정토사 주지, 대각사상연구원장, 한국정토학회 명예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을 맡고 있다.

범해 스님은 청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수계했다. 통도사 기획국장과 호법국장, 포교국장, 총무원 문화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14~17대 중앙종회의원,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 등을 역임했다. 해남사 · 무룡사 주지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약사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실상 재임 확정

중앙선관위, 3월16일
자격심사 '이상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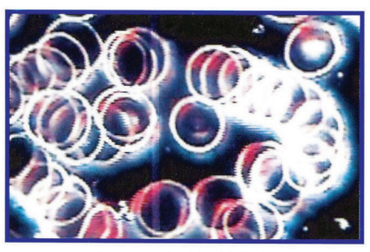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차기주지에 현 주지 덕문 스님<사진>의 재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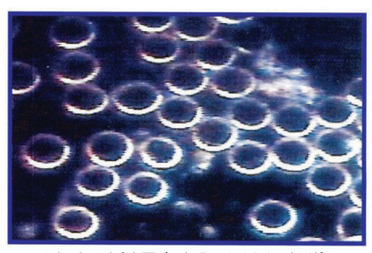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3월 16일 화엄사 차기 주지후보에 단독 출마한 덕문 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없음' 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덕문 스님은 3월 19일 화엄사 산중총회에서 차기 주지로 당선확정될 예정이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을 시작으로 7안거를 성만했으며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 · 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화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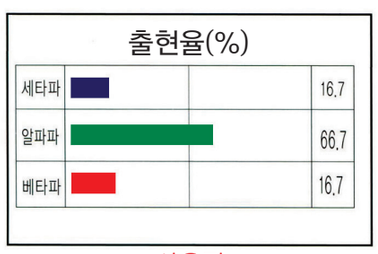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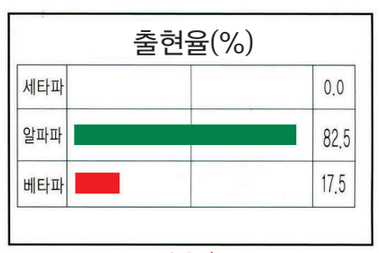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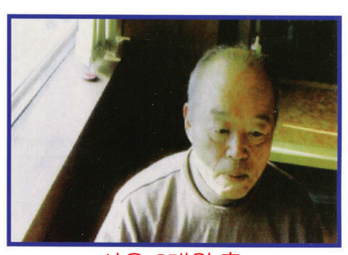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이는 혈관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질환 (다리에 쥐 나는 것, 목 · 어깨 · 허리 통증, 무릎 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에 대해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과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